

numbers 제 57호



주요 내용

2020. 07.24

1. 직장 내 성희롱 실태, '지방 자치 단체'가 가장 심각!
2. 1) 한국, '뉴스 전반에 대한 신뢰도' 40개국 중 최하위
2) 청년층(19~34세), 혼자 살고 있는 '1인 가구' 19%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홈페이지 | www.mhdata.or.kr
E-mail | mhdata@mhdata.or.kr
전화 | 02.322.0726

일반 사회 통계

직장 내 성희롱 실태, 민간 기업, 공공기관 통틀어 ‘지방 자치 단체’가 가장 심각!

충남지사, 부산시장에 이어 이번에 서울시장까지 공교롭게도 지역 내에서 최고 권력자인 지방 자치 단체장들이 성 관련 문제로 자리에서 내려오고 급기야 삶을 마감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서울시장 사건은 우리 국민에게는 큰 충격이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이 1년이 지났지만 직장인들은 상사의 갑질에 대해 여전히 줄어들지 않았다는 인식이 높다.

이런 환경에서 목회데이터연구소는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데이터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여성 가족부에서 성희롱 실태 관련 조사를 3년 간격으로 대규모로 실시하고 있는데, 그 자료에 따르면, 국내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 통틀어 ‘지방 자치 단체’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율이 가장 높았으며, 동료의 성희롱 피해 목격을 역시 ‘지방 자치 단체’가 가장 높은 사실을 발견했다.

또 서울시에서 자체 실시한 ‘2018년 서울시 공무원 성희롱 실태조사’에서는 서울시 ‘여성 공무원’의 38%가 직장 내 성희롱을 목격했다고 응답했다. 직장 내 성희롱의 주된 가해자는 상사이다. 아직까지 직장 상사의 ‘성인지 감수성’이 약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목회데이터연구소는 이번 서울시장 사망 사건을 통해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살펴본 후 교회 내의 성희롱 실태까지도 파악하여 교회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 자료 출처(생산자)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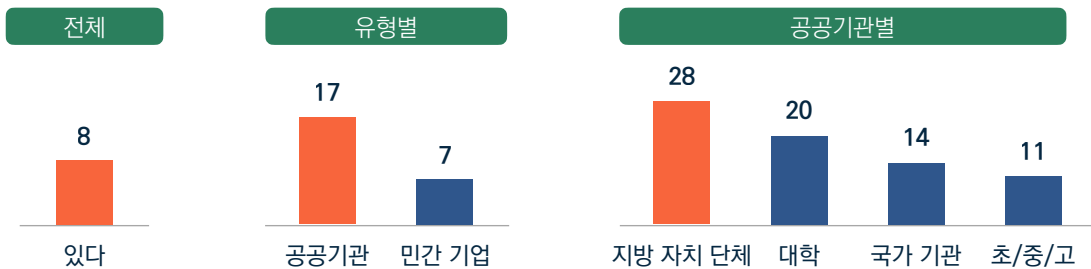
1



직장 내 성희롱 실태, '민간기업', '공공기관' 통틀어 '지방 자치 단체'가 가장 심각

- 여성가족부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가장 최근에 조사한 '2018년 성희롱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은 전체 평균 8%로 나타남
- 성희롱 피해 경험을 유형별로 보면, '공공기관' 17%, '민간 기업' 7%로 '공공기관'이 '민간 기업'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밝혀짐
- 공공기관 중에서는 '지방 자치 단체' 28%, '대학' 20%, '국가 기관' 14%, '초/중/고' 11%로 '지방 자치 단체'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여성' 14%, '남성' 4%로 여성이 훨씬 많지만, 남성 피해자도 어느정도 있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율(최근 3년간) (%)



*자료 출처: 여성가족부,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 2019.02.28.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전국의 일반 기업 및 공공기관 근로자 9,234명, 방문 조사/온라인 조사, 2018.09.17.~12.13.)

성희롱 피해 유형,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 '음담패설/성적 농담'이 가장 많아

- 성희롱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가 6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음담패설/성적 농담' 42%, '회식 때 술 따르기/옆에 앉도록 강요' 33%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유형 (중복 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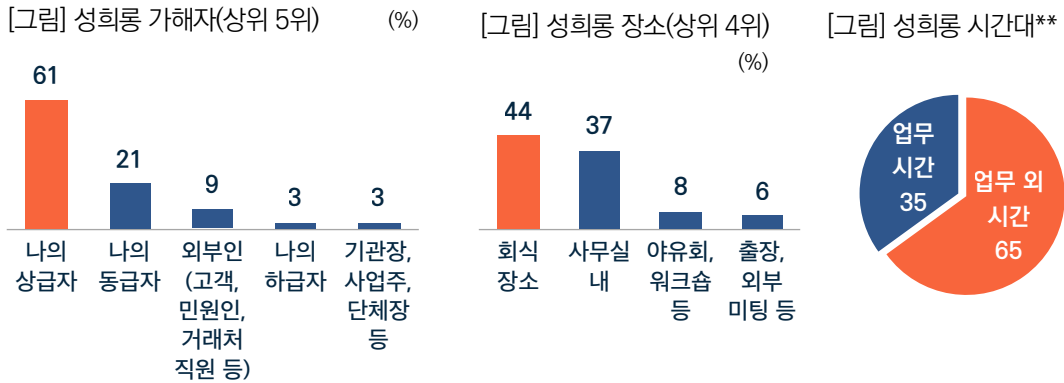


*자료 출처: 여성가족부,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 2019.02.28.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전국의 일반 기업 및 공공기관 근로자 9,234명, 방문 조사/온라인 조사, 2018.09.17.~12.13.)

** 원 보고서는 이 항목에 대해 전체 응답자(9,234명) 기준으로 분석했으나, 여기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피해 경험자(748명, 가장 치준 후 피해 경험자 수) 기준으로 재분석하였음

● 성희롱 가해자 : '상급자' 61%
 성희롱 장 소 : '회식 장소'(44%) > '사무실'(37%)
 성희롱 시간대 : '업무 외 시간' 65%

- 성희롱 가해자는 '상급자'가 61%로 압도적으로 높는데, '기관장/사업주'의 가해자 비율은 3%로 매우 낮음
- 성희롱 장소는 '회식 장소'(44%)와 '사무실'(37%)에서 주로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남
- 성희롱이 발생한 시간으로는 '업무 외 시간'이 65%로 전체 2/3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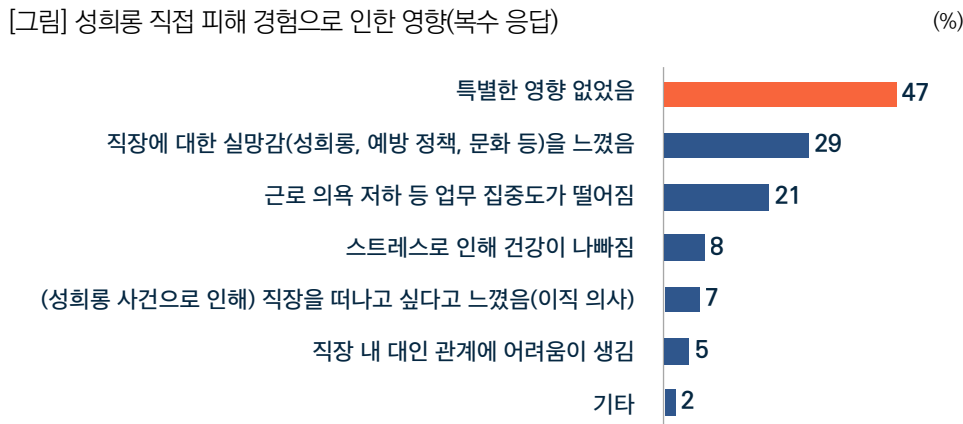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여성가족부,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 2019.02.28.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전국의 일반 기업 및 공공기관 근로자 9,234명, 방문 조사/온라인 조사, 2018.09.17.~12.13.)

**자료 출처 : 대전세종연구원, '2018 대전시 지방자치단체, 공사공단, 출자 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실태 조사', 2018.07.05 (대전시 공무원 7,316명, 면접원의 직접 방문에 의한 자기 기입식)

● 성희롱 피해자 절반 정도가 피해 후유증 겪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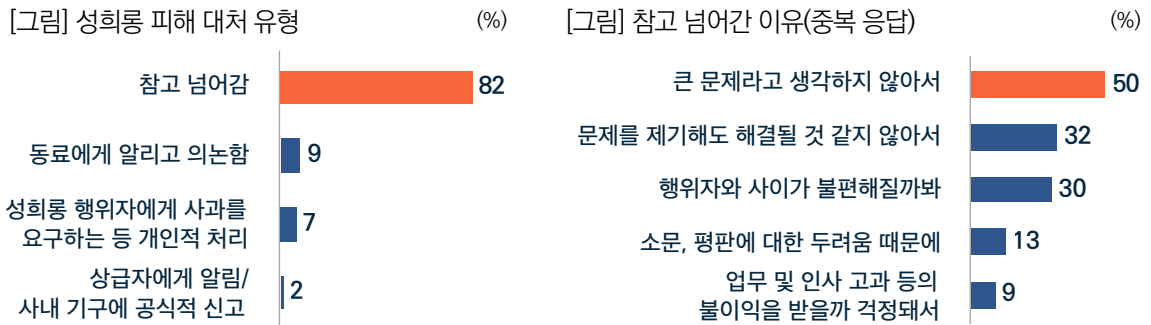
- 직접적인 성희롱 피해 경험으로 인해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를 질문하였는데, '특별한 영향이 없었다' 47%, '영향이 있었다' 53%로 절반 이상이 피해 경험 후유증을 보였는데, 세부 내용으로는 '직장에 대해 실망감을 느낀 경우'가 2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근로 의욕 저하 등 업무 집중도 떨어짐' 21%, '스트레스로 건강 나빠짐' 8% 등의 순으로 나타남



*자료 출처 : 여성가족부,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 2019.02.28.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전국의 일반 기업 및 공공기관 근로자 9,234명, 방문 조사/온라인 조사, 2018.09.17.~12.13.)

● 대부분의 성희롱 피해자, '참고 넘어간다' 82%

- 성희롱 피해를 당한 후 어떻게 대응했는지 질문한 결과, '참고 넘어간다'는 응답이 8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는 10% 안팎으로 나타남
- 그냥 참고 넘어간 이유는 절 반 정도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며, 나머지 절 반은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인사적으로 불이익 받을까 또는 소문에 대한 두려움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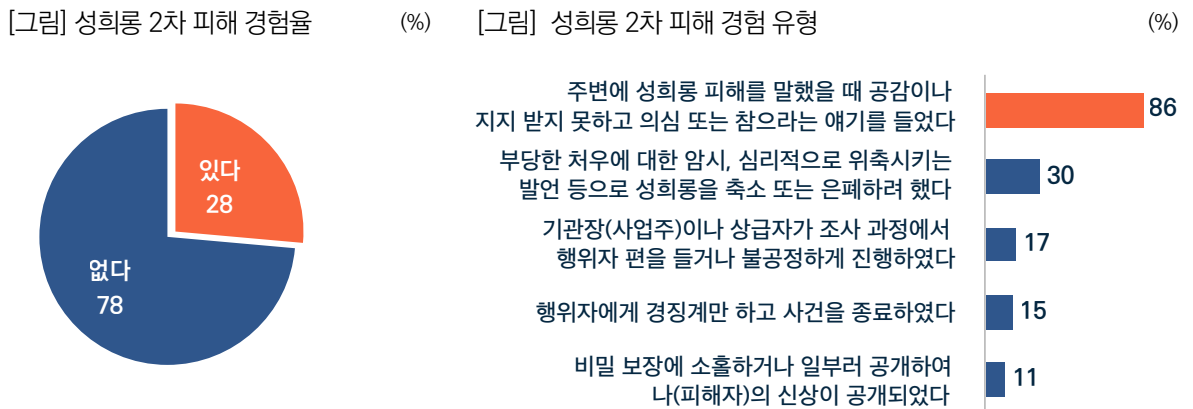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여성가족부,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 2019.02.28.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전국의 일반 기업 및 공공기관 근로자 9,234명, 방문 조사/온라인 조사, 2018.09.17.~12.13.)

2



성희롱 2차 피해, 피해자 '10명 중 3명' 경험!

- 성희롱 피해 경험에 대해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이나 행동 등으로 또 다시 겪게되는 어려움이 있었는지, 즉 2차 피해에 대해 질문한 결과, 피해자의 28%가 '있다'고 응답함
- 2차 피해 유형을 보면, '주변에 피해 사실을 말했을 때 의심 또는 참으라는 이야기를 들은 경우'가 8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당한 처우 등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발언 등 성희롱을 축소/은폐하려함'이 30%로 조사됨



*자료 출처 : 여성가족부,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 2019.02.28.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전국의 일반 기업 및 공공기관 근로자 9,234명, 방문 조사/온라인 조사, 2018.09.17.~12.13.)

**원 보고서는 이 항목에 대해 1차 피해자 기준으로 분석했으나, 여기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2차 피해자 기준으로 재분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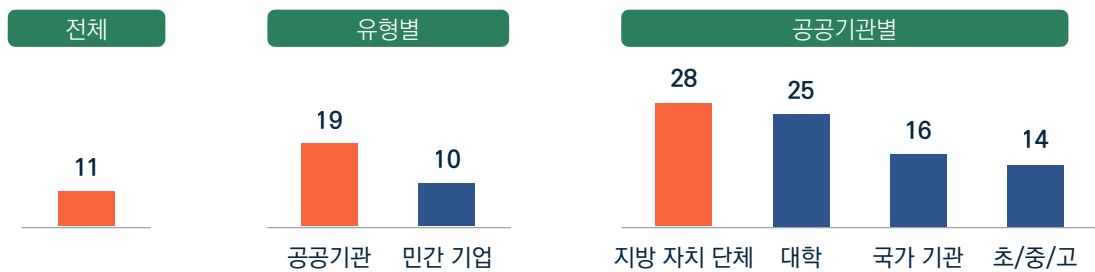
3



직장 내 성희롱 목격 경험은 전체 평균 11%이나, '지방 자치 단체'는 28%까지 올라감

- 현 직장에서 최근 3년간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경험을 전해 듣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 경우는 전체 근로자의 11%로 나타남
- 성희롱 목격 경험을 유형별로 보면, '공공기관' 19%, '민간 기업' 10%로 '공공기관'이 '민간 기업'보다 두 배 가량 높았으며, 공공기관 중에서는 '지방 자치 단체' 28%, '대학' 25%, '국가 기관' 16%, '초/중/고' 14%로 '지방 자치 단체'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지방 자치 단체'의 성희롱 목격률이 30% 가까운 수치를 보면, 조직 내 상급자 등 성희롱 가해자의 성인지 감수성이 약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그림] 직장 내 성희롱 목격 경험률(최근 3년간) (%)



*자료 출처 : 여성가족부,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 2019.02.28.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전국의 일반 기업 및 공공기관 근로자 9,234명, 방문 조사/온라인 조사, 2018.09.17.~12.1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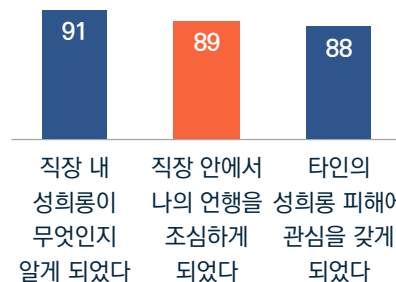
성희롱 예방 교육 참석 후, '직장 안에서 나의 언행을 조심하게 되었다' 89%

- 지난 1년간 직장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은 비율은 91%로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이수한 것으로 나타남
- 교육 참석 후 느낌에 대해 대부분의 이수자들은 '직장 안에서 언행을 조심하게 되었다', '직장내 성희롱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타인의 성희롱 피해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등으로 응답해 교육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그림] 1년간 성희롱 예방 교육 이수 여부 (%)



[그림] 성희롱 예방 교육 이수 후 본인의 변화 (4점 척도,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



*자료 출처 : 여성가족부,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 2019.02.28.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전국의 일반 기업 및 공공기관 근로자 9,234명, 방문 조사/온라인 조사, 2018.09.17.~12.13.)

지금까지 전국단위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성희롱 실태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은 「2018년 서울시 공무원 성희롱 실태 조사」 자료를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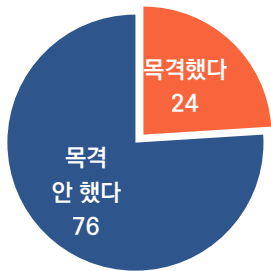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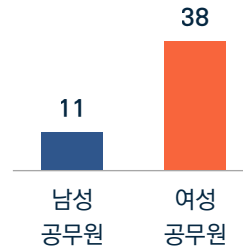
서울시 여성 공무원, 직장 내 성희롱 '목격률' 38%

- 서울시가 자체 조사한 '2018년 서울시 공무원 직장 내 성평등 및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공무원 중 지난 1년간 주위 동료 직원이 성희롱을 당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경험(자신 제외)은 전체 평균 24%로 나타남
- 이를 성별로 살펴 보면, '여성' 38%, '남성' 11%로, '여성'의 40% 가까이가 직장 내 성희롱을 목격한 것으로 응답했음

[그림] 지난 1년간 직장 내 성희롱 목격률 (서울시 공무원 전체) (%)



[그림] 지난 1년간 직장내 성희롱 목격률 (성별, 서울시 공무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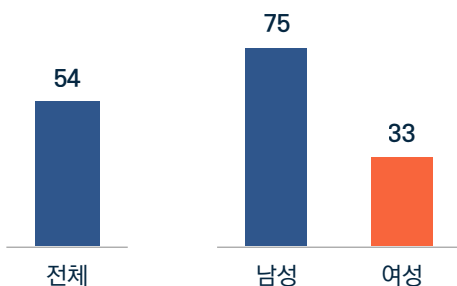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비즈한국, '서울시 여성 공무원 38% "동료 성희롱 보거나 들었다"', 2019.03.13.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17364>)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2018년 서울시 공무원 직장 내 성평등 및 성희롱 실태조사' (서울시 공무원 중 3개월 이상 근무자 6,810명, 2018.10.25.부터 22일간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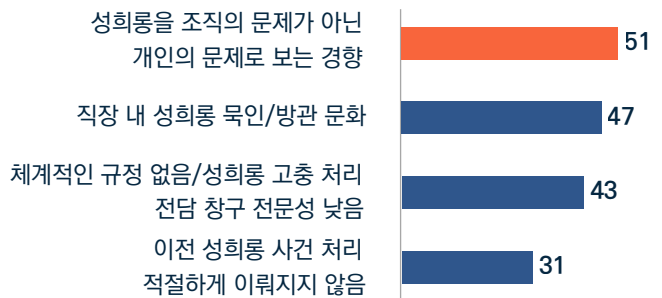
● 서울시 여성 공무원 3명 중 2명, '성희롱 사건 적절한 처리 안할 것'

- 재직 중인 직장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할 경우 사내에서 적절한 처리를 해줄 것 같은지 질문했는데, 서울시 전체 공무원의 54%가 '그렇다'고 응답함
- 이를 성별로 보면, '여성'의 긍정 응답은 33%, '남성'은 75%로 두 배 이상 차이를 보임
- 적절한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은 성희롱을 개인의 문제로 축소하려는 조직 분위기, 목인/방관하는 사내 분위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높음

[그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내에서 적절히 처리해 줄 것 같다('그렇다' 비율) (%)



[그림] 적절한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 (상위 4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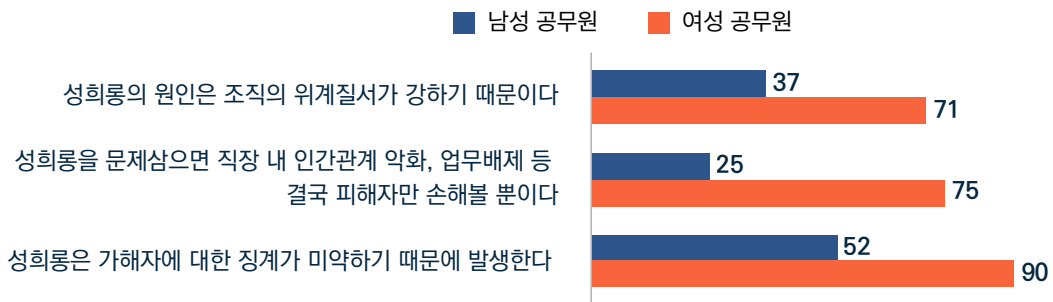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비즈한국, '서울시 여성 공무원 38% "동료 성희롱 보거나 들었다"', 2019.03.13.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17364>)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2018년 서울시 공무원 직장 내 성평등 및 성희롱 실태조사' (서울시 공무원 중 3개월 이상 근무자 6,810명, 2018.10.25.부터 22일간 조사)

● 서울시 여성 공무원, '성희롱의 원인은 조직의 위계질서가 강하기 때문이다' 71%

- 성희롱에 대한 인식은 남성과 여성의 인식의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데, 성희롱에 대해 문제 삼으면 손해 본다는 인식, 성희롱 발생 원인에 대한 인식 등에서 큰 차이를 보임
- 여성 공무원의 경우 '성희롱을 문제삼으면 피해자만 손해볼 뿐이다' 75%, '조직의 위계질서가 강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71%, '가해자의 징계가 미약해서 발생한다' 90%로 인식하고 있음

[그림] 성희롱에 대한 인식 (남성 공무원 vs 여성 공무원)



*자료 출처 : 비즈한국, '서울시 여성 공무원 38% "동료 성희롱 보거나 들었다"', 2019.03.13.(<http://www.bizhankook.com/bk/article/17364>)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2018년 서울시 공무원 직장 내 성평등 및 성희롱 실태조사' (서울시 공무원 중 3개월 이상 근무자 6,810명, 2018.10.25.부터 22일간 조사)

한국교회탐구센터에서 「한국교회 내 성평등에 따른 개신교인의 인식조사(2018년)」를 실시했는데, 그 조사 결과 중 교회 내 성희롱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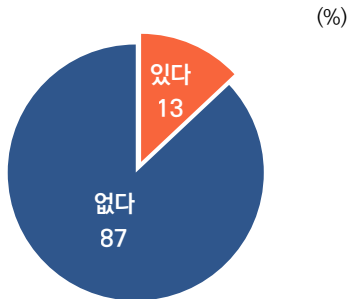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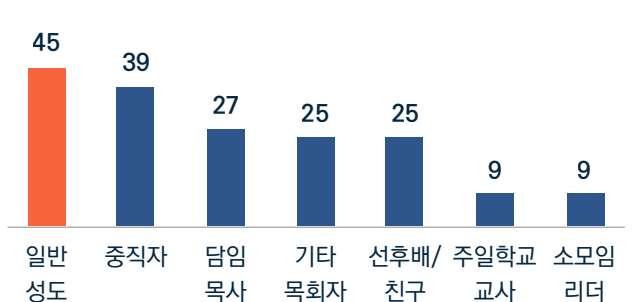
교회 내 성희롱 실태, 개신교인 '교회에서 성희롱 보거나 들었다' 13%

- 한국교회탐구센터가 실시한 '성평등에 따른 개신교인의 인식조사 보고서(2018년)'에 따르면, 교회 내에서 성희롱을 보거나 들었던 경험은 13%로 나타남
- 교회 내 성희롱 가해자는 중직자/목사/교사/소모임 리더 등 리더 그룹이 절반 이상임

[그림] 교회 내 성희롱 목격 경험 (%)



[그림] 교회 내 성희롱 가해자(중복 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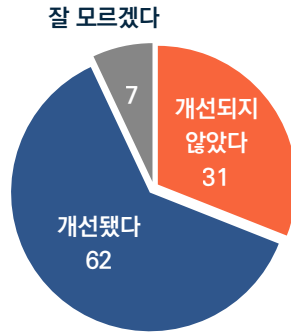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교회탐구센터, '성평등에 따른 개신교인의 인식조사 보고서', 2018.06.05.(전국 만19세 이상 교회 출석 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 조사, 2018.03.23.~04.03)

● 교회 내 성희롱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 31%

- 교회 내 성희롱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성희롱 목격자들을 대상으로 질문하였는데, ‘개선됐다’ 62%, ‘개선되지 않았다’ 31%로 개선됐다는 인식이 높으나,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도 10명 중 3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교회내 성희롱 개선 여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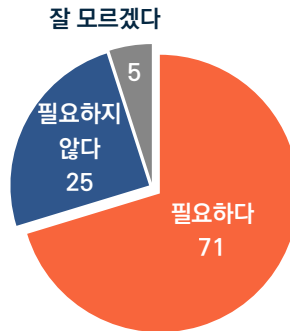
*자료 출처: 한국교회탐구센터, '성평등에 따른 개신교인의 인식조사 보고서', 2018.06.05.
(전국 만19세 이상 교회 출석 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 조사, 2018.03.23.-04.03)

**4점 척도, (매우+약간) 개선됐다, (별로+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비율임

● 교회 내 성희롱 예방 교육, ‘필요하다’ 71%

- 일반 직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교회는 그렇지 못한 상황인데, 교회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 얼마나 필요한지 질문한 결과, 개신교인의 71%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교회내 성희롱 예방 교육 필요성** (%)



*자료 출처: 한국교회탐구센터, '성평등에 따른 개신교인의 인식조사 보고서', 2018.06.05.
(전국 만19세 이상 교회 출석 개신교인 1,000명, 온라인 조사, 2018.03.23.-04.03)

**4점 척도, (매우+약간) 개선됐다, (별로+전혀) 필요하지 않다 비율임

7



성희롱, 실제 사례들

다음은 2018년 11월 5일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 주최한 ‘전문직 여성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및 대책 마련’에 관한 심포지엄 때 발표한 자료 중 전문직 여성 성희롱/성폭력 심층면담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내용이다.

1) 사례 1 (여성 교수)

“가해자는 지속적으로 사진을 보내며 ‘당신이 없으니 외롭네요’라는 식으로 연락해 왔다. 가해자는 정교수이고 기혼자인데, 나에게 늦은 밤에 연락하여 같이 술을 마시자고도 했다. 가해자는 거의 1년 가까이 연락하거나 기다리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나는 50대 미혼인데, 남교수들은 나에게 ‘저러니 결혼을 못하지’라고 하거나 ‘집에서 애나 잘 키우지 왜 나와서 남자들 자리를 빼앗냐, 여자가 왜 그렇게 설쳐대냐’면서 조롱하기 일쑤이다.”

2) 사례 2 (여성 언론인)

“수습기간을 끝내고 축하하는 자리였다. 나는 정직원이긴 하지만 고용불안정성이 아직 남아있는 기간이고 1년을 채우지 못한 신입이었다. 10년차 정도되는 같은 부서 상사가 회식 후에 데려다 주겠다고 택시를 같이타고 가면서, 술이 취하여 내가 인지를 못하는 것을 이용해 몸을 쓰다듬고 모텔로 데려가려고 했다. 오른쪽에 앉아 어깨와 팔을 끌어안고 쓰다듬었다. 팔을 잘라 버리고 싶었다.”

3) 사례 3 (여성 변호사)

“대표 변호사가 직접 운전하는 차량의 보조석에 동승해서 ○○구치소 가는 길에 대화 나누던 중 대표 변호사가 손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핸드백 위에 올려놓은 나의 손을 잡아서 핸드 쪽으로 가져가서 손금을 보더니 새끼손가락을 자신의 오른손으로 잡고 있었다. 그리고 구치소에서는 대표 변호사가 접견할 의뢰인이 다수인데 나를 가르쳐준다는 명목으로 옆자리에 앉히고 좁은 접견실 안에서 의뢰인이 없을 때마다 나의 손을 만지면서 매니큐어를 물어보거나 손이 예쁘다는 등의 말을 했다.”

4) 사례 3 (여성 의료인)

“선배 의사였는데 나에게 토론을 하자면서 술자리로 부르고 2차로 ○○에 있는 술집으로 갔는데 너무 취해서 토론이 안되기 시작했고 갑자기 가해자가 옆자리에 와서 껴안기 시작했다. 충격받아서 눈물이 나왔고 몸이 굳어졌다.”



시사점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사회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의 성폭력 사건으로 점철되었다. 2019년 인천 여중생 성폭행 사건 등 학생들 간의 사건, 전 충남지사의 비서 성폭행 사건,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 비롯하여 최근 서울시장 성추행 고소 사건, 스스로의 아픔을 무릎 쓰고 세상에 용기있게 발언한 서지현 검사에서 비롯된 잇단 미투사건 등은 우리 사회가 성희롱/성폭력 문제에서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여지없이 드러낸 사건들이다. .

우리가 성희롱/성폭력에 대해 오해하는 것 중 하나는 성희롱이 개인의 성욕 혹은 인성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욕이 있거나 성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이 성희롱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다. 이는 힘센(육체적 힘이 아니라 사회적 힘) 남성이 여성을 낮춰보고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인식에서 발생한다는 것이 본질이다.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존재로 보지 않고 욕망의 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여성을 비하하는 언행을 하게 만들고, 쉽게 성적인 범죄의 대상으로 여기게 만든다. 그래서 성희롱은 성차별이 심한 사회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우리의 정신세계는 가부장적 위계를 사회의 근본 질서로 삼았던 유교가 수백 년 이상 지배했다. 현대는 유교의 그늘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남성 중심 사고가 강하게 남아 있다. 남성 중심 사고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성평등, 성차별 측면에서 여성의 위치를 이해하지 못하므로 여성의 외모와 성적 농담에 대해 여성이 어떻게 느끼는지, 얼마나 불편하고 수치스럽게 느끼는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가 있다. ‘성인지 감수성’은 1995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유엔 여성대회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성인지 감수성은 양성평등의 시각에서 일상생활에서 성별 차이로 인한 차별과 불균형을 감지해내는 민감성을 의미한다. 기존의 성 역할이나 고정관념으로 형성된 성 인식의 문제에 공감하는 능력을 뜻한다. 쉽게 말하면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성과 관련 차별과 불균형을 민감하게 인식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반면 성인지 감수성이 낮은 사람은 성차별 발언 또는 행동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낮아 위와 같은 발언과 행동을 빈번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본 보고서 분석 결과를 보면 교회에서 성희롱이 만만치 않게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직장 내 성희롱 목격률이 11%인데 교회에서 본인이 직접 당했거나 혹은 주위에서 성희롱이 일어난 것을 보거나 들은 목격률은 13%였다. 두 수치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교회에서 성희롱이 사회보다 적게 일어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교회에서의 성희롱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젠 교회도 어떤 언행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을 도입할 시점이 된 것 같다. 각 교회서 적극 검토해 봄 직하다. 본 보고서에서 언급한 대로 이 교육의 긍정적인 효과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언행 하나하나에 대한 지적과 교정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민감성을 키워야 전반적인 성희롱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은 결국 성평등 교육과 연결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존재로서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상대할 때, 성희롱도 줄어 들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언론 보도 통계

- 한국, '뉴스 전반에 대한 신뢰도' 40개국 중 최하위
- 청년층(19~34세), 혼자 살고 있는 '1인 가구' 19%

언론 보도 및 이슈 큐레이션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참여한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디지털 뉴스 리포트2020(Digital News Report 2020)>을 지난 6월 17일 발간했는데, 여기에서 세계 총 40개국의 80,155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이용 현황을 발표했다. 이중 한국의 조사 결과와 다른 국가의 결과를 비교한 내용에 대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미디어 이슈」에 실린 내용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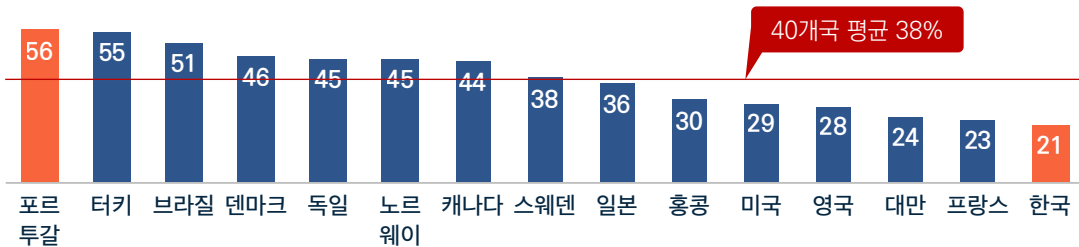
1



한국, '뉴스 전반에 대한 신뢰도' 21%(40개국 중 최하위)

- 세계 40개국 국민들에게 '뉴스 전반에 대해 신뢰'하는지 물은 결과, '포르투갈'이 56%로 가장 높았고, '한국'은 21%로 나타나 40개국 중 최하위에 위치함

[그림] '뉴스 전반에 대한 신뢰한다' 응답률(총 40개 국 중 주요 15개 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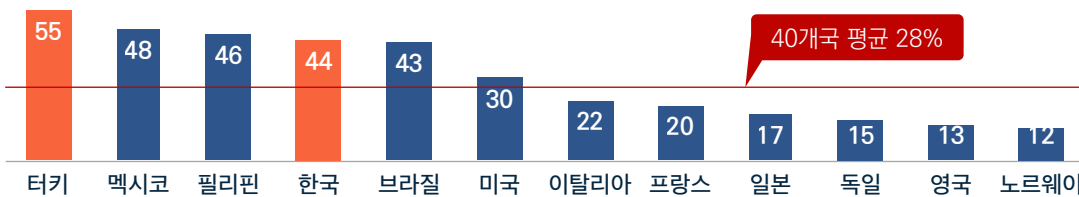


*자료 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 '편향적 뉴스 신뢰 이용과 언론 신뢰 하락(Digital News Report 2020) 주요 결과', 2020.06.17. (40개국, 80,155명, 온라인 조사, 2020.01.13.-02.25)

● 한국, '나와 같은 관점의 뉴스 선호한다' 44%로 40개국 중 상위권(4위)

- 나와 같은 관점의 뉴스에 대한 선호도를 질문한 결과, '한국'은 44%로 40개국 평균 28%에 비해 무려 16%p 높았는데, 순위는 40개국 중 4위로 상위권임

[그림] 관점에 따른 뉴스 선호도(나와 같은 관점의 뉴스 선호한다, '그렇다' 응답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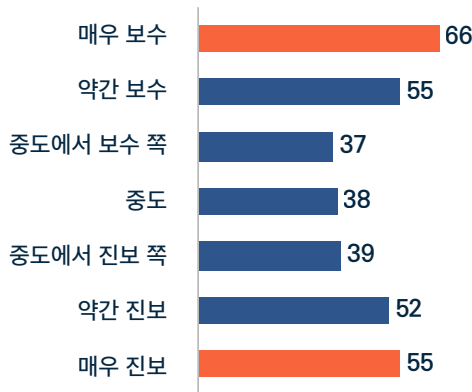
*자료 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 '편향적 뉴스 신뢰 이용과 언론 신뢰 하락(Digital News Report 2020) 주요 결과', 2020.06.17.(40개국, 80,155명, 온라인 조사, 2020.01.13.-02.25)

** 본 문항의 보기는 '나와 같은 관점의 뉴스', '특정 관점이 없는 뉴스', '나와 반대되는 관점의 뉴스' 등 3가지로 제시하였는데, 여기서는 '나와 같은 관점의 뉴스' 응답률만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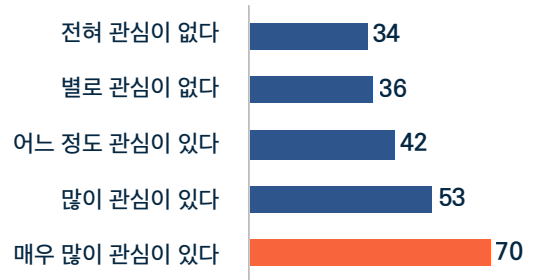
● 한국인, '나와 같은 관점의 뉴스 선호한다', '매우 보수' 66%

- '한국'은 정치 성향에 따라 자신과 관점이 같은 뉴스 선호도의 차이가 매우 큰 편인데, 특히 '매우 보수'라고 응답한 사람 중 66%가 '나와 같은 관점의 뉴스를 선호한다'고 응답해 다른 정치 성향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남
- 또한 정치 관심도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정치에 '매우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70%가 '나와 같은 관점의 뉴스를 선호한다'고 응답하여, '전혀 관심이 없다'(34%)와 '별로 관심이 없다'(36%) 응답자와 큰 차이를 보임

[그림] 정치 성향별 뉴스 선호도 ('나와 같은 관점의 뉴스 선호한다', '그렇다' 비율) (%)



[그림] 정치 관심도에 따른 뉴스 선호도 ('나와 같은 관점의 뉴스 선호한다', '그렇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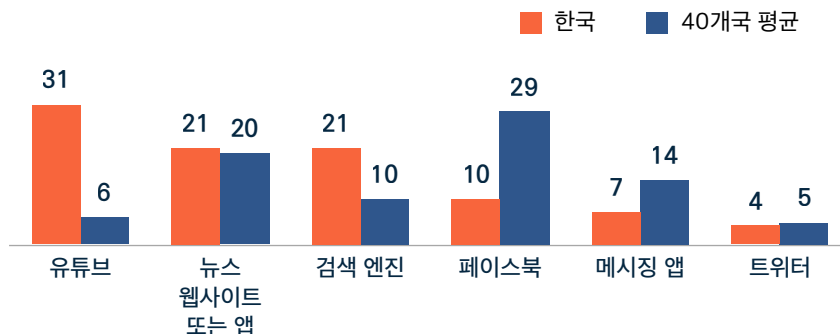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언론진흥재단', '편향적 뉴스 신뢰 이용과 언론 신뢰 하락(Digital News Report 2020) 주요 결과', 2020.06.17.(40개국, 80,155명, 온라인 조사, 2020.01.13.-02.25)

** 본 문항의 보기는 '나와 같은 관점의 뉴스', '특정 관점이 없는 뉴스', '나와 반대되는 관점의 뉴스' 등 3가지로 제시하였는데, 여기서는 '나와 같은 관점의 뉴스' 응답률만 제시함

● 한국, 허위 정보나 오정보로 우려되는 미디어 플랫폼: '유튜브'가 31%로 1위

- '한국'의 경우, 허위 정보나 오정보로 우려되는 미디어 플랫폼으로는 '유튜브'가 31%로 가장 높은 반면, 40개국 평균은 '페이스북'이 29%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주요 플랫폼의 허위 정보/오정보에 대한 우려(한국 vs 40개국 평균) (%)



*자료 출처 : '한국언론진흥재단', '편향적 뉴스 신뢰 이용과 언론 신뢰 하락(Digital News Report 2020) 주요 결과', 2020.06.17.(40개국, 80,155명, 온라인 조사, 2020.01.13.-0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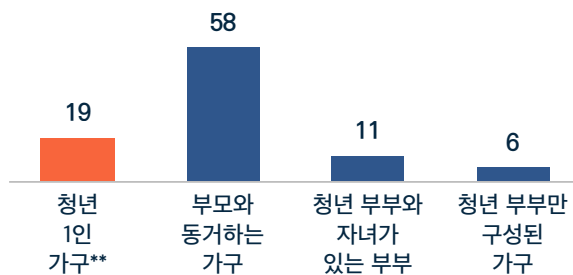
2



청년층, 혼자 살고 있는 '1인 가구' 19%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9년 청년(만19~34세)이 속한 전국의 3,018가구를 대상으로 한 '청년층 생활 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 '1인 가구'는 전체 청년이 속한 가구의 19%로 나타남
- 그밖에 청년 가구 형태로는 '부모와 동거하는 가구'는 58%, '청년 부부와 자녀가 있는 부부' 11%, '청년 부부만 구성된 가구' 6%로 나타남

[그림] 청년이 속한 가구(유형별, 상위 4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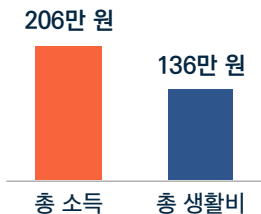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6월호, 청년 가구의 경제 현황과 지원 방안' 2020.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2019년 기준 만 19세~34세 이하, 남녀 청년 3,018명)
**청년 1인 가구는 청년 독립 가구를 말하는데, 가구주가 부모나 본가에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 생활을 유지하는 경우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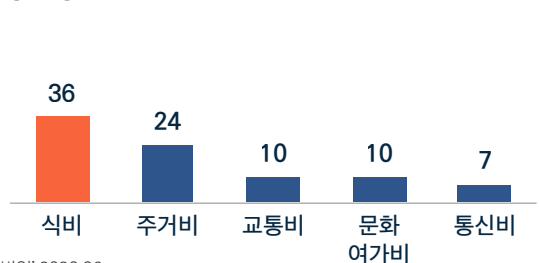
● 청년 1인 가구 월 평균 총 소득, '206만 원'

- 청년 1인 가구 월 평균 '총 소득'은 206만 원, 월 평균 '총 생활비'는 64%인 136만 원으로 각각 나타남
- 총 생활비 중에서 '식비'가 36%(50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거비' 24%(32만 원, 월세 24만 원), '교통비' 10%(14만 원), '문화여가비' 10%(13만 원), '통신비' 7%(10만 원), '교육비' 2%(3만 원) 순임
- 청년 1인 가구의 총 부채는 639만 원이며, 부채가 있는 청년의 경우 총 부채는 3,105만 원으로 나타남

[그림] 청년 1인 가구 소득과 생활비(월 평균) (만 원)



[그림] 월 생활비 유형 (%)



*자료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6월호, 청년 가구의 경제 현황과 지원 방안' 2020.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2019년 기준 만 19세~34세 이하, 남녀 청년 3,018명)

5



언론 보도 통계 큐레이션 및 이슈 큐레이션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일
반
사
회

[전세계 불황에도...한국만 백화점 명품 매출 급증](#)

매일경제_2020.07.17.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자 80% 이상이 1심서 '집행유예'](#)

한겨레_2020.07.20.

[음주운전 재범률 44%... '음주운전 중독', 마약보다 세다](#)

세계일보_2020.07.22.

[올해 신생아 40살 땀 일할 사람 반토막, 노인 부양비 4.5배 급증](#)

중앙일보_2020.07.23.

[한국인 기대수명 82.7년...“나는 건강” 비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아](#)

동아일보_2020.07.22.

[자살자 유가족 실태, 자책·불안...유족 78%, 극단 선택 생각한다](#)

매일경제_2020.07.21.

[한국교총, 초중고 교사 1,533명 조사, 중위권 학생 확 줄고 하위권 급증](#)

동아일보_2020.07.21.

코
로
나

[‘마스크의 위력’...확진자와 같이 예배 본 교인 9천명 모두 음성](#)

연합뉴스_2020.07.17.

[코로나 영향 : 졸업했는데 일자리 없는 청년 166만명...통계 작성 이래 최다](#)

연합뉴스_2020.07.22.

정
치

[서울시장 선거, 대통령 지지율에 달렸다?](#)

동아일보_2020.07.14.

큐
레
이
션

[‘With 코로나시대’의 특징 : 사이버세상 확대, 이념갈등 심화](#)

중앙일보_2020.07.23.

[꼰대란](#)

중앙일보_2020.07.23.

역대 주간 리포트 주요 내용

- 제 1호 | 인구 절벽, 그리고 개신교 인구 변화
- 제 2호 |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사회적 신뢰도, 갈등지수) | 종교 스위칭
- 제 3호 | 모바일 시대가 온다(개신교인 미디어 이용 실태) | 청년층 운세보기 | 황혼 이혼
- 제 4호 | 나홀로 Life, 나는 혼자여도 좋다 | 함께 일하고 싶은 리더
- 제 5호 | 다문화 가족,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다(이주 여성 실태) | 북한 비핵화 인식
- 제 6호 | 위기의 크리스천 대학생(대학생 종교 실태) | 불법 촬영(몰카) 실태
- 제 7호 | 하루 13명, 술 때문에 죽는다(음주실태) | 청년 취업 실태
- 제 8호 | 여름휴가, 어떻게 보내십니까(교회 수련회 통계) | 남성 육아 휴직
- 제 9호 | 유튜브 홀릭 | 한일 분쟁
- 제 10호 | 흡연, 성인 남성 하루 100명 죽는다 | 55세 이상 고령층 취업 희망자
- 제 11호 | 크리스천 4명 중 1명, 교회 안 나간다 | 한국인, 정신·심리 관련 조사
- 제 12호 | 북한이탈주민, 연 가구 소득 2,000만 원 미만 40% | 2019 대한민국 영향력 있는 인물 순위
- 제 13호 | 추석, 즐겁지만 여성에게는 힘든 명절, 89% | 2040 아빠 육아경험, 고령화 통계
- 제 14호 | 한국인, 인간관계를 축소하고 있다 | 합계 출산율, 전국 초중생 방과후 학원 이용 실태
- 제 15호 | 한국인 행복도, '돈'에 과도하게 영향받고 있다 | 임금 근로자 연봉 상하위 격차 14.4배
- 제 16호 | 한국인 1일 37명 자살 | 우리나라 기부 참여율 40%(최근 1년간)
- 제 17호 | 장애인, 문화 활동 거의 못하고 있다 | 한국 부자 보고서 분석
- 제 18호 | 장애인 실태 2, '장애인 근로자, 고용 기업의 만족도 높다!' | 미국 크리스천의 담임 목사 인식 조사, 한국 국가 경쟁력 순위
- 제 19호 | 한국 사회 혐오, 심각하다 96% | 100세 시대 인식조사
- 제 20호 | 특별판(1-19호) 종합 정리
- 제 21호 | 개신교인, 전광훈 목사 긍정적 평가 13% | 한국 사회 공정성 평가 조사
- 제 22호 | 당신은 '꼰대' 입니까? |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 주요 여론조사 통계
- 제 23호 | 학벌 중심 사회, 국민 절반 가까이 학력 콤플렉스 '느낀 적 있다' | 평생직장 인식 변화, 우리나라 커피 소비 인식 조사 결과
- 제 24호 | 가족 호칭, '가부장 문화가 반영됐다' 72% | 한국인이 좋아하는 인물편(분야별)
- 제 25호 | 한국인의 결혼·가정관 빠르게 변하고 있다 | 한국인이 좋아하는 브랜드(일반 국민 vs 개신교인 비교), 우리 국민 절반은 '나는 가난하다' 생각한다)
- 제 26호 | 개취를 아십니까? | 전세계 기독 청년의 교회 인식 조사, 한국인의 기대 수명
- 제 27호 | 한국인의 기부, 불투명성이 발목 잡는다! | 2019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 조사 결과, 1인당 노동소득과 소비 간 비교
- 제 28호 | 2019 [넘버즈] Top 7
- 제 29호 | 2020년 1인 가구 대세 시대 | 미국 크리스천, 교회 출석 이유, '목사의 설교 내용' 절대적임, 한국 사회, 빈익빈 부익부 현상 뚜렷하게 나타남
- 제 30호 | 50년 뒤 한국, '국민 2명 중 1명이 노인!' | 한국인 새해 경기 및 살림살이 전망, 작년 전국시도지사 직무 평가 결과
- 제 31호 |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는 대상, '가족!' | 2020 새해 목표, 성격 변화
- 제 32호 | 이제는 착한 소비의 시대! | 2019년 한국 파송 선교사 현황, 한국인 4명 중 1명 '사소한 일에 화가 난다'
- 제 33호 | 빅데이터로 본 2019 한국 교회 | 10대 청소년, 관심·흥미 주제 찾을 때, 유튜브가 압도적, 한국인 5명 중 1명 '종종 소외감을 느낀다'

역대 주간 리포트 주요 내용

- 제 34호 | 생활의 기쁨, 가족보다 '반려동물'에서 더 얻는다! |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일상의 변화
- 제 35호 | 외로운 대한민국, 한국인 고독 지수 78점 | 밀레니얼 세대 직장인 분석
- 제 36호 | 코로나19 관련 개신교인 여론조사 결과 분석 | 코로나19 관련 국내 주요 신학교 권고의 글 모음
- 제 37호 | 가짜 뉴스, 심각하다 89% | 총선 40일 현재 국민 여론
- 제 38호 | 한국인, 부자가 가난한 자보다 오래 산다! | 우리나라 헌혈 통계 분석, 코로나19 이후 일상의 변화들
- 제 39호 | 한국인 정치 만족도 16% | 우리나라 대학생 81%, 고등학교는 사활을 건 전장, 미혼자, '주례 없는 결혼식' 선호도 67%
- 제 40호 | 악플도 범죄다, 65% | 코로나19 이후 마스크 5부제 찬성 68%
- 제 41호 | 성인 2명 중 1명,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 있다' | 우리 국민 필수와 선택
- 제 42호 | '코로나 19의 한국 교회 영향도 조사' 결과
- 제 43호 |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 신뢰도 올랐다! | 40년간 국내 주요 물품/서비스 가격 변화, 한국인의 의심병
- 제 44호 | 한국의 여성 가사노동, 부담스럽다' 57% | 코로나19 관련 미국 여론조사 분석 결과
- 제 45호 | 한국의 아동 행복도, OECD 최하위권! | 21대 총선 결과 분석
- 제 46호 | 한국의 부모, '다시 태어나도 내 자녀의 부모로 태어나고 싶다' 69% | 코로나19 관련 6개국 비교 조사 결과, 외모·성형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 제 47호 | 우리의 가난한 이웃, 한부모 가정 | 기혼자 30%, 불륜 경험 '있다', 트로트 매력 '친근한 멜로디' 32%
- 제 48호 | 우리들의 아버지, 대한민국의 퇴직자들의 삶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통계로 보는 언택트 사회 전망
- 제 49호 | 새로운 소모임 공동체 살롱 문화의 부활!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조사, 역사 왜곡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 제 50호 | 우리 사회 갑질, '심각하다' 86% | 코로나가 가져온 식품 소비의 변화, 미국 개신교인들의 목사 설교 시간에 대한 인식
- 제 51호 | 일반 국민, 온라인 종교 활동 '삶에 긍정적 변화다' 53% | 코로나 이후 직장인 점심식사 관련 인식 변화, 최근 10년 간 범죄 유형의 변화
- 제 52호 | 코로나19에 대한 목회자 인식 조사 결과(예장통합 교단)
- 제 53호 | 한국 교회 유튜브 최다 조회수는 '찬양 콘텐츠!' | 한국인 5명 중 1명 '외롭다', 교회 학교 여름 사역 계획 조사
- 제 54호 | 한국 교회 리더십, 디지털 정보 격차 문제에 부딪히다! | 체벌하는 한국 부모, 72%, 올 여름 휴가, 코로나19로 인해 '안전한 바캉스 선택' 64%
- 제 55호 | 한국 개신교, '가족 종교화'되고 있다! | 코로나19 확진자, '아무런 증상 없었다' 36%
- 제 56호 | 우후죽순 '○○데이' 문화, '소통의 계기가 된다' 50% | 서울 초중고학생, '사교육 받고 있다' 78%, 레깅스, '최근 한 달간 입은 적 있다' 37%, 내년 최저 임금, '8,720원'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자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노량진교회, 당진동일교회, 백주년기념교회, 서현교회, 서울서문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안산제일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오륜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주안장로교회, 진주삼일교회, 창동염광교회, 한성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광주지식포럼, (사)사단법인아시아미션, (사)새길과새일, 알파코리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장로회신학대학교, 한목회, 제이제이경제연구소,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빛누리, 한국기부문화연구소, (재)CBS, CCC 사역연구소 (가나다 순)

후원 기업 | (주)그랑블루, 동광에스아이, (주) 마뜨,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셀파 C&C, (주)시스코프, (주)예종세무법인, (주)참든건강과학, (주)트로인, (주)하츠, 한국피스메이커(가나다 순)

후원 개인 | 고재환, 금교성,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성렬, 김성은, 김시은, 김영훈, 김윤철, 김은선, 김재욱, 김주룡, 김현모, 김형태, 김홍일, 남성태, 류지성, 박노석, 박미경, 박영철, 박준상, 박진철, 박우빈, 박세용, 박홍래, 반기민, 배수정, 석승호, 송섭, 안태근, 엄정석, 유성민, 유형창, 윤여민, 이덕, 이병희, 이만민, 이미경, 이완중, 이영선, 이인성, 이정규, 이창준, 이춘봉, 이현식, 이훈희, 임현주, 장명희, 장우성, 장병우, 장형철, 정종섭, 정준, 전치영, 정희수, 조용민, 조창오, 최상현, 최준혁, 최은아, 함용태(가나다순)

MOU 기관 | (사)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목회데이터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김준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연구원 | jy0113@mhdata.or.kr

김은선 | 목회데이터연구소 간사 | mhdata@mhdata.or.kr